

‘우리의 소원은 통일’ 광주평화열차 DMZ로 출발

6·15남북공동성명 25주년을 기념해 운행하는 ‘광주평화열차’가 13일 오전 6시54분 355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효천역을 출발,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로 향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이날 오전 광주평화열차 출발지인 남구 효천역 광장에서 ‘광주가 왔다, 통일이 온다’를 주제로 2025 광주평화열차 1980 트레인 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무식은 일일 명예역장으로 나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병내 남구청장이 대형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며 시작을 알렸다.

이후 인사말, 시민대표에게 80년대 열차표를 디자인한 ‘평화행 티켓’ 전달, 탑승객에게 작은 한반도기 전달하는 순서 등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들의 평화를 향한 열기가 대단하다. 공공 열어붙은 남북 관계에 다시 평화의 봄이 오는 듯하다”며 “광주평화열차는 시민들의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며 달릴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평화열차 탑승객 7씨(서구 치평동)는 “제3방굴 등 비무장지대 일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엄청 설렌다”며 “금강산까지 자가용을 타고 가는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하루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함께 온 한 부부는 “가족이 함께 통일과 평화의 가치를 새기면 좋을 것 같아 신청했다”며 “특히



6·15남북공동성명 25주년 기념... ‘1980 트레인’ 출무식

광주 평화사절단 360여명 평화·통일의 가치 직접 체험
강기정 시장 “다시 평화의 봄... 통일열원 씨앗 곳곳에 뿌릴 것”

아들이 최근 수업시간에 비무장지대를 배웠는데 실제로 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생생한 교육현장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평화열차는 광주 효천역에서 입진 강역까지 특별기차로 이동하며, 1980년 5

월 광주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열차 안에서는 1980년 5월을 주제로 한 음악다방, 연극 공연 등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가 진행된다. 입진강역 도착 후에는

파주시 DMZ 일원에서 안보현장 견학이 이어진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는 9·19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기념하며 9월19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로 평화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대표적인 평화도시로서 하반기 운행하는 열차도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도일 기자



서구, 5년 묵은 갈등 ‘숙의 민주주의’로 풀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운영방안, 주민-행정 전원합의의 도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5년 넘게 오해와 갈등이 이어졌던 지역 현안을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협치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서구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의 시설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하고 건립 초기부터 불거졌던 오해와 갈등의 본질을 바로잡아 전원 합의의 이끌어냈다. 서구는 이번 숙의 과정을 통해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받던 사안을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풀어냈으며 공공의 해법을 주민과 함께 찾아낸 서구 최초의 숙의 사례로 평가된다.

갈등은 2020년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작했다. 서구는 국비를 확보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서구청 일부 부서와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이 들어서는 다기능 복합청사로 설계했으나 설명과

홍보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농성2동의 단독 청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농성2동 주민들이 ▲다목적용 명칭 및 관리주체를 ‘농성2동’으로 명확히 지정할 것 ▲건물 내 공유주방과 물품보관 공간을 확보할 것 ▲인근 임시주차장의 관리주체를 주민자치회로 지정하거나 관리수익을 배분할 것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는 더 깊어졌고 서구가 당초 설계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바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4월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주민 대표 5명과 서구청 국·과장 5인이 참여해 협의체가 꾸려졌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중앙정부와 광주시 주관 공모를 통해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에 활력을 넣는 사업을 잇달아 가져오면서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에서 제출한 백운광장 금·토 별빛 야시장 사업계획안이 최근 광주시에서 진행된 2025년 전통시장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

광주 남구, ‘백운광장 금·토 야시장’ 접경사

정부·광주시 주관 공모 잇단 선정 ‘상인들 화색’

모에 선정된 이후 2번째 접경사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남구는 이번에 광주시 주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이 소식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다.

해당 사업비로 남구형 먹거리 특화사업 등 다채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선 남구는 이곳 상인들과 협력해 먹거리 특화사업과 이동식 매대·아나바다 운영, 별빛 야시장 경관 조성 등 특화사업을 선보일 방침이다.

먹거리 특화사업은 젊은 청년과 외국인을 위한 먹거리 개발 및 메뉴 다변화를 위

한 프로젝트이다.

메뉴 개발을 희망하는 점포 15곳을 선정한 뒤 음식 개발 전문 요리사를 초청해 해당 점포를 대상으로 메뉴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식 행사와 요리 경연대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이곳 상점가에서 판매하지 않은 메뉴를 발굴하고, 상점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이동식 매대와 경매식 아나바다를 운영한다.

임채일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12일 ‘광주 대표 상권 1호’ 동명동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을 위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회장 남병호)와 ‘광주 우수상권 집중 육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 우수상권 집중 육성사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광주형 로컬 브랜드를 육성, 광주 대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

동구, 동명동 ‘로컬 콘텐츠 타운’ 만든다

동구·상생일자리재단·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업무 협약

업의 일환으로 ‘제4회 동명커피산책’을 개최, 일 방문객 4만여 명, 상가 매출 32% 증가, 타 지역 방문 25%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동명동이 광주 대표 특화 상권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택 구청장, 김현성 대표이사, 남병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동 로컬 브랜드 창출과 자생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광주 대표 상권을 육성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동명 로컬 콘텐츠 타운’ 주요 내용은 ▲동명동 상징 포토 스팟·테마 거리 조성 ▲상인-크리에이터

협업 특화 상품 개발 ▲동명 일상 투어 프로그램 ‘동명 걷다’ 운영 ▲지역관리회사 육성·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들 기관은 차별화된 로컬 브랜딩을 통해 동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동명동의 골목을 산책하며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는 로컬콘텐츠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동 인구 증가, 상점가 매출 증진, 로컬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철수 기자

‘광주 자치구 최초’ 지역화폐 ‘부끄머니’로 불러주세요

북구, 오는 9월 1일 총 100억 원 규모의 ‘부끄머니’ 발행 예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을 ‘부끄머니’로 결정했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6주간에 걸쳐 진행된 공모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모는 오는 9월 중 100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인 북구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자 전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모 결과 총 636건의 이름이 접수됐다.

이후 북구는 주민, 공직자, 구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두 번의 온·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를 받은 7개의 명칭을 선정했으며 최종 심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부끄머니’가 북구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으로 결정됐다.

‘부끄머니’는 북구의 도시브랜드 캐릭터인 ‘부끄’와 ‘머니’를 더한 단어로 지역화폐의 의미가 담겨있으면서 주민들에게 쉽고 친숙하게 기억될 수 있는 명칭으로 평가받으며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최종 심사에 오른 7개의 지역화폐 명칭을 제안한 주민들에게는 최종 심사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1명), 장려상 각 10만 원(5명)의 시상금을 오는 9월 중 ‘부끄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끄머니’의 원활한 유통과 가맹점 기반 확대를 위한 ‘부끄머니 가맹점 모집 홍보단’ 단원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홍보단은 총 200여 명의 규모로 구성되며 다음 달 18일까지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활동에 따른 소정의 실비를 지급받는다.

송현근 기자

